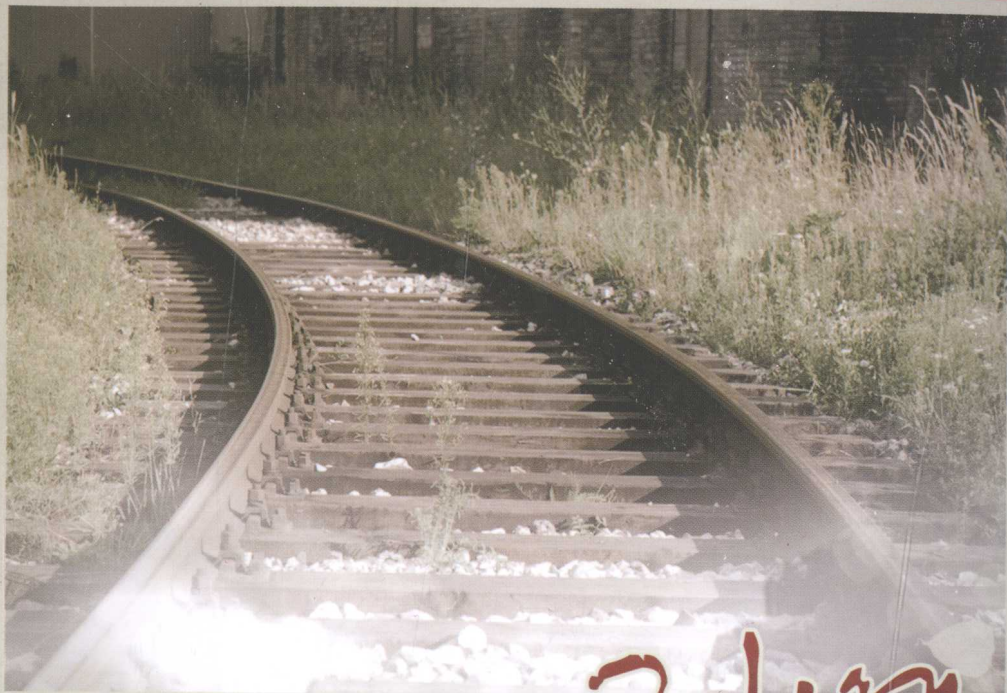




21세기 2

김장혁 저

때로는 그대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연주해주다가도 화산폭발 같은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참말로 사랑은 변덕스러운 카멜레온, 사랑은 요술쟁이야. 허나 사랑은 월계관도 사닥다리도 아니다.

아, 사랑스러운 그대여. 그대는 내 사랑의 발자취이며 씩씩한 숨결이며 진심에 찬 목소리여라.

수필집

21 회

김장현 지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仁德

责任校对: 南今月

版面设计: 朴昌友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离别: 朝鲜文 / 金长赫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10. 6

ISBN 978-7-5449-1182-5

I. ①离… II. ①金… III. ①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0) 第102588号

离 别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375 字数: 2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1182-5 (民文)

版次: 2010年6月第1版

2010年6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김장혁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울까? 나는 청춘시절부터 절벽우에 피여난 아름다운 꽃송이 같은 그대를 짝사랑하지 않았던가. 실련의 쓴맛을 볼대로 본 나는 그대를 잊지 못해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인들 얼마나 쉬었던가. 그 애탄 한숨에 모아산마저 날아날 지경이 아니었던가. 새벽잠을 설치고 뛰여일어나 그대를 그리여 열변을 토한적이 어찌 한두번이었겠는가. 그대에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의 메아리를 연주해주고 피 끓는 청춘의 심장마저 다 바쳐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허나 그대는 그저 담담한 표정만 지으면서 침묵을 지켰을뿐 나의 절절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흘러 그대는 나의 사랑이 소중한것을 알기 시작한것 같았다. 실련의 아픔을 씻어버리고 한발자욱한발자욱 그대에게 다가가는 나를, 사회의 용광로속에서 까만 먼지를 들뜨면서도 탈바꿈하며 일편단심 그대만을 사랑하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까만 머리에 서리가 어설프게 내린 나를 뒤늦게나마 인정해주었다. 그대는 항상 솔직하고 숨길줄 몰라 사랑스러웠다. 세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몸부림치는 이 나그네의 사



량을 차츰차츰 받아들이었다.

때로는 애절한 리별의 아픔도 쓸쓸히 받아들이면서 그대의 순진한 마음에 기대여 흐느껴 울었다. 때로는 절절한 사랑도 호소하고 이루지 못한 첫사랑도 애달과 정자나무아래에서 그대와 함께 밤새도록 목메여 울었다. 그때마다 그대는 내 심장과 함께 울고 흐느끼고 대성통곡했다. 때로는 그대에게 애틋한 사랑이야기로 한수의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연주해 주다가도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대는 나와 함께 사랑환상곡을 부르면서 오색령롱한 산테리아아래에서 사교무를 추면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참말로 그대는 나와 함께 울고 웃고 통곡하고 노래하는 친구였다. 때로는 정의의 기발을 들고 바른소리를 하고 도전의 돌격나팔도 불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밤을 패가면서 이야기속의 자그마한 인생철리를 발견해내고서도 마치 신기루나 발견한듯이 환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나의 그림자 같은 그대와 함께 제주도과 묘향산을 유람하면서 금수강산을 목청껏 노래하였다. 조상들이 몇천년 살아온 경주와 영월, 명천을 돌아다니면서 조상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탄하였다...

아, 사랑스러운 그대여, 그대는 내 생활의 씩씩한 발자취이며 살을 에이는 아픔이고 진심에 찬 목소리여라.

반백이 지난 오늘에야 나는 사랑스러운 그대들로 첫 수필 집을 세상에 내놓노라.

2010년 2월 6일

차 례

인정세태수필편

리별	3
아들비위, 딸비위	11
한국 모범택시아가씨	15
제주도며느리	20
생과 사	24
상처	28
술	31
효자와 도리깨아들	35
친구	38
무지	42
목욕탕에 피여오르는 김	46
형님	49
십촌손자손비	53
공을기의 코웃음	55
베풀며 사는 인생	59
“황소가 왕이 되겠느냐?”	63



십촌할아버님	67
군자와 소인	70
“나 하나쯤이야”	74

사랑수필편

서울도우미아가씨	79
“정부바람”	85
실련	90
처음 집에 데려왔던 처녀	95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 인생은	98
조강지처	101
“서울바람”	106
꽃담배쌈지	110
효자와 사랑	114

사색수필편

유와 무	121
오해	124
밥그릇	128
조약돌과 모난 돌	130
조상들의 산소	135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분(古墳)	142
용기	151
충신 김려생	153
심한삼의 패망	161
소곤소곤 속삭이는 서울말소리	164
버릴줄 알아야	166
아름다운 한국	170
재물	172
물	175
화살	177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	180

아동수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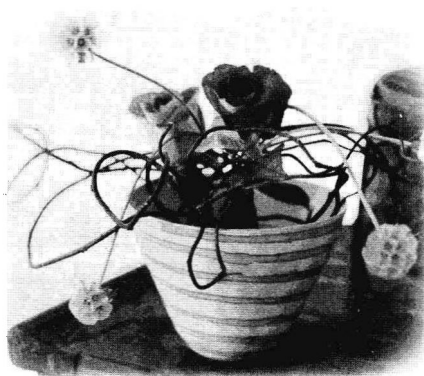
무지개를 쫓아보세요	187
버들피리 불던 소꿉시절	190
검둥이의 울음소리	193
노란 등산복	196
개구쟁이	199
내 고향의 부르하통하와 칼산	203
질투	207
사랑의 때	210
의리	213
돈줄	216



모험의 대가	219
낙시질	222
꿈	224
바늘도적이 소도적으로	227
락제생을 두고	231
교정의 종소리	234
칼산의 무선전파	238
“수학골선생”	243
용서	246
별명	249
“어비”와 귀신	252
사춘기의 번뇌	255



인정세태수필편



수필

리별

나는 아들을 저 멀리 소주로 보내면서 리별이란 그렇게 마음이 아픈것을 두번째로 느끼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검표구앞에서 나와 안해를 끌어안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플랫폼에 나가도 종당에는 갈라지겠는데 여기서 작별합니다. 몸이랑 주의하고 젊게 살면서 잘 있으십시오.”

작별인사를 끝내자 검표구로 해서 멀어져가는 아들의 흰 칠한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안해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었다.

“이젠 영영 우리 품속을 떠나가는구나.”

나는 인파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뒤모습을 한없이 바라보다가 돌아서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리별에 아픈 마음을 토해냈다.

그러자 안해도 눈시울을 닦았다.

“학교로 갈 때는 갔다가 몇달후이면 온다고 생각하니 모



르겠던데요. 이번엔 저렇게 가면 언제 오겠는가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비길데 없이 아파요.”

“아들을 3천원에 팔아먹었구나.”

나는 아들을 보내고 런 며칠동안 이렇게 생각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두달 반이 지나 아들의 여자친구를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다. 아들을 소주에 보낸 마음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 두번째로 당해야 할 리별의 아픔이다. 천하에 하지 못할짓을 한것 같았다. 장차 아들과 그 여자애가 다 일본으로 류학을 간다고 한다. 다행히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일본으로 류학을 가도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한것이다. 몇번이고 속뽕이를 하여도 그 애들은 우리 부모앞에서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한다. 이제 이역만리 타향에 보낸 아들로 마음이 아픈데 국경 넘어 일본섬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내고 몇해를 지나야 다시 만날가? 국내 소주에 있는 아들도 한해에 한번 만나는데 아들은 국경 넘어 일본에 간 여자친구를 몇해에 한번 만날가?

청춘시절에 열련에 빠진 우리 부부는 사흘이 멀다 하게 만났지만 달 밝은 밤에 헤어질 때면 리별의 슬픔과 상봉의 기쁨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안타깝게 상봉을 기다릴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처량하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여자친구의 리별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고 이번 리별이 아프기만 하다. 장차 그 애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또 어느 먼곳에 가겠는지? 장차 손자손녀들이 내지에서 조선어를 모르는 “조선족”으로 될가봐 근심스럽다. 그런데도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26년 사업한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로임 3천원을 받으니 기쁘다고 소주로 떠나갔다. 나는 아들을 3천원 로임에 팔아먹은듯하고 사기당한듯한 기분이었다.

아들은 기차를 타고 소주로 가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비행을 타고 일본으로 가고말았다. 그렇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워 길림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을 이역만리밖으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더우기 공주처럼 기른 딸을 일본에 보낸 아들의 여자친구 부모의 마음이야 얼마나 눈물겹겠는가?

아들과 갈라지기 싫어서 우리는 아들을 보고 연길에 남아 함께 살자고 얼마나 설교하였는지 모른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일본에 보내기 싫어서 소주에 붙잡아두려고 우리는 아들을 시켜 얼마나 많은 수를 써봤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여자애는 기어이 일본으로 가고말았다. 천여원씩 받으면서 연길산골에 남아서 부모곁을 지키려는 애들이 지금 몇이나 될가?

부모와 함께 한도시에서 사는것도 만복중의 하나이다. 모든것은 돈으로 다 따지는게 아니건만 애들은 그런것은 심중에도 없고 몇천원을 받는 관내 연해 대도시로 가려고 하였다. 이것도 지금 애들의 시대적조류이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 조류를 거슬러 애들을 막으면 날아오르려는 새들의 날개를 짓누르는 격이 되고만다. 우리곁에 애들을 남기려고 해도 우리 연변의 경제가 낙후하기에 남겨둘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애들이 잘되는것을 보기 위해 리별의 아픔을 참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딸을 이역만리 발달한 내지에 보내야 하였다.

이제야 나는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전쟁터에 아들딸을 서



슴없이 내보낸 옛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하였겠는가를
알것 같다. 그들이야말로 아들딸과의 생사를 모를 리별의 아픔
을 여린 마음으로 고통스레 감당해온 대단한 애국주의자가 아
니겠는가!

이제야 나는 한 교수의 증조할아버님세대부터 대대로 자
식들을 무식쟁이 아닐 정도로 소학교공부만 시켰다는 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을 널리 알
게 되면 고향과 부모를 떠난다고 여겼기때문이다.

이제야 나는 아들과의 리별에 마음이 아픈줄을 알게 되었
다. 그 리별의 아픔으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확실히 일본에 류학하려고 마음 먹
었었다. 그것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돈을 내고 갈수 없었으므로
모험의 길을 걸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파뿌리처럼 하얀 머리를
흘날리는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가서 나는 뜻을 꺾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어머니를 보고 일본에 류학하려는데 어떤가고 묻자
어머님은 내 예상과는 달리 말리기는커녕 “일본에 류학을 가
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아주 기뻐하시는것이였다.

어머님은 이 못난 아들이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모험의 길
을 걸으려고 날뛰는것도 모르고 아들이 잘되기만을 바라고계
셨다.

주름살이 조글조글한 어머니를 바라보자 나는 외동아들
인 내가 없으면 늙으신 부모님들은 누가 모시겠는가고 생각하
고 그렇게 가고싶던 일본류학도 포기하고 뜻을 꺾고말았다.

그렇다. 예로부터 충신은 효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효

성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려는 소박한 길을 선택하였던것이다. 나는 견식을 넓히고 큰인물이 되어 잘살겠다고 늙으신 부모를 고향에 남겨두고 일본으로 가는 모험을 하는 불효를 저지를수 없었다. 중국에서 수수하게 살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효성을 다 하면서 현실에 립각하여 문학창작이나 하면서 내 한생을 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그때의 선택이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버님이 세상을 뜨기 한주일전 아버님과의 리별은 정말 내 한평생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는 마음이 아픈 리별이었다. 아버님이 평소에 즐겨하는 소고기 등을 사들고 병문안을 갔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사업터로 돌아가야만 하는 나의 손을 잡고 아버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것이였다.

“꼭 사업에 성공하오. 사람은 빚을 지고 살아도 남의 말밖에 오르고서는 못사오. 정의를 지키고 시비를 가려 글을 써야 진정한 기자이구 작가요. 내 말을 명심하오.”

그러고나서 아버님은 가래짜 같은 손을 들어 군례를 올리듯이 손을 들어 어서 가라고 손시늉을 하였다.

나는 눈물을 훔치면서 문밖을 나섰다. 그러나 별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고 마지막 부탁인것 같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자전거에 몸을 실으려다가 짐으로 되들어갔다.

그러자 아버님은 몸을 일으키시면서 손을 척 들어 저으면서 신신당부하셨다.

“왜 돌아왔소? 사내자식이 눈물이 그리 헤프고서야 어떻



게 큰일을 하겠소? 어서 돌아가오. 아들이 사업을 잘해 성공하면 난 구충천에서도 웃겠소.”

아버님은 어서 떠나가라고 손시늬를 연신 하셨다. 나는 지금도 그 마지막 리별에 마음이 아프다. 일주일전만 해도 정신이 말쑥하셨던 아버님이 이 불효자식을 두고 총망히 떠나가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아버님은 그날이 마지막 리별이라는것을 짐작하셨겠지만 이 불효자식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또 그것이 아버님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일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과 자손들과 그 얼마나 리별하시기 싫으셨고 아쉬우셨겠는가? 이제야 나는 부모와 자식의 리별의 아픔과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것 같다.

사업밖에 모른 나머지 아버지 림종전에 아버지결을 한시간이라도 더 지키지 못한 내가 한스럽고 원망스럽다. 물론 살기 어려운데다가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 그랬지만 부모들의 전통적인 관념대로 한집안에 부모를 모시지 못한것이 속에 내려가지 않고 죄송스럽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일제통치하에서 아침에 죽물을 마시고나면 저녁에 술에 안칠 쌀근심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효성을 다하셨고 작은 고모를 키워 시집까지 보냈다. 해방후 아버님은 모 현 공안국 설립 준비소조 조장을 맡고 임무를 완수한후 집으로 돌아오셨다가 앓아누운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보고 또 갓난애를 업고 큰애를 앞세우고 밭에서 기음을 매는 어머니를 눈물겹게 보고 청운의